

미래엔과 동아일보교육법인이 함께하는

# 중학교 자유학기제

www.m-teacher.co.kr  
edu.donga.com

미래엔의 교수 활동 지원 플랫폼

Mirae N 엠티처

www.m-teacher.co.kr

vol.22 | 2018년 8월호

## 자유학기제 현장 돋보기

전국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편성해 운영할 수 있는 오후 자유학기 활동(△진로탐색 △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학생의 수요를 반영해 개설되는 만큼 형태도 다양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할까’ 고민하는 교사들에게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숨겨진 꿈과 끼를 찾아 주는 자유학기 운영 사례를 소개합니다.

### 부산 개금여중 ‘지역의 재발견’

## “네가 살고 있는 고향, 넌 얼마나 알고 있니?”



영상통화로 타지역 중학생에게 부산시를 홍보하는 개금여중 학생의 모습. 개금여중 제공

부산 개금여중 자유학기 주제선택 프로그램인 ‘지역의 재발견’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은 토론과 교외 체험학습 등으로 부산의 역사·문화·자연적 특징을 깊이 이해한다. 이후 수업시간에 만든 부산 지역 홍보물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기부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누구나 기여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

이 수업을 기획한 박원주 개금여중 사회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거주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교과의 국가와 세계의 특성도 깊이 학습할 수 있도록 이 수업을 기획했다. 박 교사의 수업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2018 자유학기제 실천사례 연구대회’에서 자유학기활동분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총 18차시로 진행된 ‘지역의 재발견’ 수업은 △나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 △역사 속 지역탐험 △6·25 전쟁과 구포국수 △지역에 반하다 △어묵! 얼마만큼 아니? △산, 강, 바다에 살고 있는 우리지역 사람들 △내가 만드는 지역 △이바구길 런닝맨! △나는 지역홍보 전문가!의 순서(각 2차시)로 진행됐다.

### 역사·문화·지리, ‘부산’으로 쉽고·재밌게 배운다

박 교사는 수업을 크게 △지역알기 △지역느끼기(교외 체험학습) △지역 홍보하기 3단계로 구성했다. 학생들이 ‘부산’에 대해 깊이 이해해야 체험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추후 부산의 특성에 꼭 맞춘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

먼저, 1~2차시 수업에서 학생들은 부산시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했다. 구글맵 지도를 보며 세계 속에서 부산이 차지하는 위치를 파악하고, 부산을 다시 구와 동으로 세분화해 살펴 보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위치를 정확히 이해한 것. 이후 모듬원과 함께 부산의 구·시청 홈페이지를 조사하고 인포그래픽 지도 퍼즐, 타이포그래피 등을 제작하며 부산 지역의 지명 유래 및 인문·자연 환경의 특징을 파악했다.

이어진 3~4차시에서는 부산진·동래부 순절도 그림, 부산지역 독립운동가, 6·25 전쟁 당시 피난민 사진 등을 탐구하며 주요 역사 속에서 부산의 역할과 변천사를 살폈다. 박 교사는 “유관순 열사 외에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 잘 몰랐다는 한 학생은 영화 ‘암살’ 속 전지현 캐릭터의 모티브가 부산의 박차정 의사임을 알고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다”고 말했다.

플리마켓과 체험학습을 위한 사전준비 성격의 수업도 진행됐다. 7~8차시에 학생들은 부산의 유명 음식과 지역 축제 중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를 하나 선택해 직접 조사한 후 이를 홍보하기 위한 클레이아트와 배지, 거울 등을 제작한 것. 10~11차시에는 부산의 산복도로를 운행하는 ‘만디버스’의 코스 지도를 살펴본 후 일대일→모듬별→학급 토론을 통해 체험학습 장소를 선정했다.

박 교사는 “학생들은 체험학습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 그곳의 특성과 방문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의사소통 능력도 함양할 수 있었다”며 “8, 11차시에 각각 일본문화, 해양생태계 전문가를 초청해 일본문화가 부산에 미친 영향, 부산의 해양생태계 등을 알아보며 학습의 깊이도 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수업시간에 만든 부산 홍보물품을 판매하는 학생들의 모습. 개금여중 제공

### 뛰고 만들면서 체감하는 지역민의 삶

‘지역느끼기’ 단계에서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체험학습을 통해 몸소 경험했다.

5~6차시와 9~10차시에 학생들은 각각 구포국수와 어묵을 만들며, 각 음식의 유래와 부산의 지리적 특성을 이해했다. 구포국수가 다른 국수에 비해 쫄깃하고 짭짤한 이유는 낙동강과 바다 사이 바람이 강하게 부는 지역에서 국수를 말리기 때문이며, 일제강점기에 부산이 항구로 이용된 탓에 일본의 영향을 받아 어묵이 발달했음을 알게 된 것.

15~16차시에는 '이바구 길'에서 런닝맨 게임을 진행했다. 이바구길은 앞서 7~8차시에 학생들이 '만디버스'의 코스 지도를 살펴보고 직접 선정한 체험학습 장소로, 외지인이 아닌 동구청의 지원을 받은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돼 도시를 재활성화 했다는 특징을 갖는다. 학생들은 활동지에 적힌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모둠별로 지역 곳곳을 탐방하며 도시 재생 정책을 펼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 산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상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박 교사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곳을 직접 방문해 그 의미가 남달랐다"며 "체험학습에 돌아온 후 이바구 지역의 사례를 참고해 다른 지역의 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논하도록 했더니 체험학습 현장에서 배운 것을 복습하는데 효과적이었다"고 말했다.

### 우리 지역 홍보전문가 '나야 나'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과 만든 작품을 실생활에 적용해보았다.

13~14차시에는 부산 지역의 관광 코스와 브랜드를 개발한 후 이를 활용해달라는 내용의 제안서를 시청에 제출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부산은 먹거리와 즐길 거리가 다양하다며 '빛나라 부산' 'Active 부산' 등의 슬로건을 제시했고, 이를 활용해 캘린더도 만들었다.

부산 홍보전문가가 되어 또래 친구에게 부산을 직접 홍보하기도 했다. 17차시에 부산 관광 포스터를 제작하고, 18차시에 김해 지역의 한 중학교와 영상통화를 하며 부산에 대해 설명한 것. 박 교사는 "김해의 중학생과 서로의 지역에 대해 설명하며 문화의 다양성을 배울 수 있었다"며 "다른 국가와 영상통화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다. 2016년에는 러시아와 해당 활동을 진행했는데, 이를 계기로 외교관의 꿈을 갖게 된 학생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 교사는 학생들이 제작한 부산 홍보물품이 실제 부산의 발전과 변화에 기여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창체 시간과 연계해 2차례의 플리마켓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앞서 수업시간에 제작한 뱃지, 거울, 달력 등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지역 복지관 등에 기부하며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세, 배려심 등을 길렀다. 박 교사는 "평소 성격이 소심하다고 생각했던 학생은 플리마켓에서 물품을 판매하며 자신에게도 적극적인 면모가 있음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 박원주 부산 개금여중 교사가 말하는 주제선택 활동

# “배움이 곧바로 실천으로 이어지는 수업”

‘지역의 재발견’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토론 및 공작 활동, 교외 체험학습 등을 통해 부산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자신들이 만든 부산 지역 홍보물품을 판매하며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해보았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도한 박원주 부산 개금여중 사회 교사는 “학생들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지 진로와 연관지어 고민하기도 했다”면서 “통역사를 꿈꾸던 한 학생은 부산에 이렇게 자랑거리가 많은 줄 몰랐다면 미래에 외국인들에게 우리 지역의 멋을 알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역의 재발견’ 수업을 이끈 박 교사로부터 수업 기획 과정과 운영 노하우에 대해 들었다.

▶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mailto:hj_kim86@donga.com)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부산 브랜드와 배지, 타이포그래피 퍼즐, 캘린더(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개금여중 제공

### 수업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사회 교과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지역’에 대한 학습이 이뤄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지역에 대해 배운 뒤, 중학교에서는 국가, 세계로 배우는 공간이 확장된다.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의 위치에 대해 배우는 중1 사회 1단원을 가르치다보면, 정작 학생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위치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회 단원의 특정 주제에 대해 가르칠 때 학생들은 내 주변의 모습, 내가 경험한 사실을 예로 들면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진다. 학생들에게 친숙한 공간인 '부산'을 제대로 이해시키면, 국가와 세계에 대한 내용 이해도 쉬워질 것이라 생각해 이 수업을 기획했다.

게다가 자유학기 주제선택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수업과 달리 학생들과 체험학습을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기회를 활용해 자신이 교실에서 배운 지식이 실제 우리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음을 체감하게 하고 싶었다.

###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체험학습 장소까지 이동하는 것이 다소 어려웠다. 수업 시수는 2시간이었지만, 교통편이 여의치 않아 이동시간을 포함하면 수업이 2시간을 초과했다. 따라서 사전에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이 부분을 공지할 필요가 있으며, 동의서를 받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또한 사고 방지를 위해 교외체험 학습에 나서기 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어묵만들기(위), 이바구길 런닝맨에 참가한 학생들의 모습. 개금여중 제공

### 수업의 효과는?

이 수업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기르는데 효과적이며,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사는 매 차시 학생들에게 탐구해야 할 대주제만을 제공한다. 부산의 다양한 행정구역 중 어느 지역을 조사할 것이며, 홍보물 제작 시에는 클레이와 수채화, 컴퓨터 프로그램 등 무엇을 활용해 작품을 만들 것인지 학생들이 직접 결정한다. 평소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교과서 진도에 맞춰 배워야 할 내용을 수동적으로 학습하던 학생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직접 골라 스스로 공부하니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직접 제작한 부산 홍보물품을 판매해 수익금을 기부하고, 시청에 새로운 부산 슬로건과 관광코스들을 제안하는 등의 실생활 적용 활동을 통해 학교에서의 배움이 실제 자신의 삶과 지역 변화에 일조할 수 있음을 알게 됐다. 한 학생은 뱃지 디자인 활동 후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졌다고 하며 미래에 부산 홍보 포스터를 만들겠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박원주 부산 개금여중 사회 교사

## “교사가 교사의 수업지도 도움말 먼저 ‘우리 고장’ 제대로 이해해야”

###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하려면?

교사가 수업시간에 적절한 틀과 체계를 주는 것이 좋다. 학생들에게 활동시간을 무한정 주기보다 토론 시간 3분, 모둠별 발표는 2분 등의 제한을 두어 긴장감을 갖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이 만든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실생활 연계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해야 한다. 평소 신문이나 TV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면서, 해당 내용을 수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시청에 제안서를 쓰는 활동 및 플리마켓, 타 지역 학생과의 영상통화 등은 이러한 고민 과정 속에서 탄생했다.

### 기획력, 미술·발표 실력 등 학생간의 편차를 완화하려면?

학생들이 자신이 잘하는 분야의 끼를 더욱 잘 펼칠 수 있도록 조를 편성해주는 것이 좋다.

가령 발표를 잘하지만 기획 능력이 부족한 학생이라면, 소극적이지만 기획·계획 능력을 갖춘 학생과 한 팀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수업 진행에 앞서 학생들에게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도록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조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 가령 번호별로 1번은 기획, 2번은 발표, 3번은 자료정리·보고서 작성, 4번 꾸미기 등의 역할을 부여한 후 학생들에게 자신 있는 역할 번호를 종이에 써서 제출하도록 하는 것. 교사가 이를 고려해 모둠을 꾸리면 한 명 한 명 역할이 부여되기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도 방지할 수 있다.

### 제언

이 수업은 교사의 관심과 역량에 따라 질이 달라진다. 교사도 자신의 거주 지역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업 전 이에 대한 공부가 필수다. 또한 체험학습 활동이 배움으로 이어지려면 활동지를 꼼꼼하게 만들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사전에 체험학습 현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열심히 관찰·참여해야만 빈칸을 채울 수 있도록 활동지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또한 수업을 구성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무엇을 좋아하며, 경제적 환경은 어떠한지, 학교의 예산은 충분한지, 우리 지역에 갈만한 체험처는 있는지 등을 고민해야 한다.

타 교과 교사와의 협업도 중요하다. 이바구길 런닝맨과 부산 홍보포스터 제작에 국어 교사가 함께 참가해 ‘유치환 우체통’ 앞에서 학생들에게 유 시인과 작품에 대해 안내하거나, 효과적인 설득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이처럼 교과 교사가 모여 수업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도움을 받으면 수업의 폭과 깊이가 넓어지는데 도움이 된다.